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이상현(010-4300-5441)

e-mail

cpla@minjoo.kr

노동존중선거대위 핵심의제실천단, 안전한 일터와 돌봄노동을 위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안전한 일터, 아프면 쉴 권리, 돌봄권 보장은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위 핵심의제실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정책간담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위-안전한일터·아프면쉴권리실천단, 정책협약 및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5월 29일(목)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위와 안전한일터·아프면쉴권리실천단(단장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정책협약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존중선거대위 여성청년본부장인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한국노총전국연대 노동조합 문현균 위원장 외 연대노조 조합원, 노동존중선거대위 의제실천본부장 김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병가 사용 시 노동자의 불이익 금지와 지원책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확대 ▲ 상병수당제도 설계 시 사회적 의견 반영 등이다.

김윤 실천단장은 인사말에서 “안전한 일터, 아프면 쉴 권리는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비전에 담긴 약속”이라며 “일할 권리와 치유할 권리가 함께 존중받는 사회, 병이 곧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정연실 여성청년본부장(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아프면 쉴 권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5년의 시간동안 여전히 제대로 된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며 아프면 누구나 걱정없이 쉴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21대 대선 승리에 한국노총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의 문현군 위원장도 “코로나처럼 전 사회가 멈췄을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유급병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너무 축소되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아플 때 쉬지 못하면 큰 병으로 이어져 나중에 의료비 지출 부담도 커지므로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돌봄노동자가 행복한 돌봄복지국가를 만들 후보, 이재명!”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은 같은날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노동존중선대위 여성청년본부장인 정연실 상임부위원장과 한국노총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전국가사서비스 제공기관협의회 한복남 대표, 노동존중선대위 책임의원인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협약에는 ▲ 헌법상 돌봄권 보장과 돌봄기본법 제정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확대 ▲돌봄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협약 이후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돌봄이 보편화 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일자리와 복지가 분리된 한국에서는 노동부도 복지부도 여가부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에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돌봄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28일(월) ~ 29일(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지 정당 결정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 전환’을 실천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끝/

첨부. 현장 사진.



▲안전한 일터·아프면 쉬는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지지선언